

1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되다



● 배울 말씀

창세기 1장 1절-2장 3절

● 읽을 말씀

창세기 1장 1-5절, 2장 1-3절

● 외울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히 11:3 상반절).

● 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 포인트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다.

●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휴지 한 장,
(מִשְׁאֵר בֵּרֵשִׁית 베레쉬트)가 적힌
A4용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수많은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는 우주의 역사와 그 크기를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치고도 가설을 남길 뿐이며, 후대 과학자들을 통해 오류를 지적받는다. 그런데 창세기의 한 구절은 우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을 소개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이시다. 하나님은 한 치의 오류도 없으시며,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세상을 질서 있고 충만하게 채우셨다. 먼저 “빛이 있으라”(창 1:3) 하시고, 빛(낮)과 어둠(밤)을 나누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각종 식물이 나게 하셨다. 또한 하늘에 두 큰 광명체를 두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 오로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하지만 이 문화명령을 따르려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1과에서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확신 있게 전함으로,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자.

핵심 단어 창조, 질서

창조 : 사람이 생각하고 시도할 수 있는 창조와는 다르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자원이나 재료 그리고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이용한 것이다.

질서 :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각종 원리와 원칙 그리고 질서가 있다. 천체의 운행 질서, 살아 있는 생명체의 생물학적 작용 원리 그리고 자연계에 들어 있는 물리학적 원리가 그것이다. 창조의 위대함은 질서의 완전성에서 더욱 빛난다.

이름

(휴지 한 조각을 미리 준비한다. 휴지를 펴서 두 세 차례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다.) 이 휴지는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중력(물체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때문이에요. 잠시 상상해보세요. 만약 지구의 중력이 지금보다 3분의 1로 줄어든다면 우리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재 ‘이름’을 보세요. 지구의 중력이 지금보다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가정하고 주변 환경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하며 적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TIP : ‘사람의 점프력이 높아진다. 활동이 느려진다. 키가 커진다. 가벼운 물건이 뚱뚱 떠난다’ 등의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중력이 3분의 1만 달라져도 사람은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이렇듯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사람과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지구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질량이 달라진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생명체의 모습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결국 지구는 모든 것이 가장 잘 조화가 된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지구의 중력은 언제 결정되었을까요? 지구가 사람과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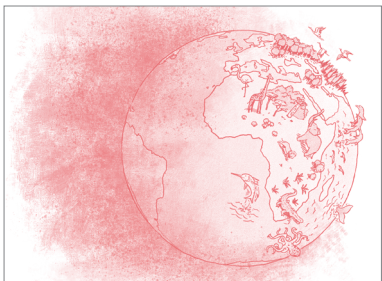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들음



여러분 교재 ‘들음’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교재에 있는 ‘בראשית(베레쉬트)’가 적힌 히브리어를 보여주며 이야기한다. 미리 A4용지에 출력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긴 글씨를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어느 나라 글씨 일까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이 글씨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글씨예요. 어순도 한글과 반대여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해요. ‘베레쉬트’, 이 글씨의 뜻을 알고 있나요? (대답을 듣는다.) 이 글씨는 ‘태초에, 즉 세상이 시작될 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작될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תְּחִלָּ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성경은 세상이 시작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찾아보세요. (시간을 준다. 대답을 듣는다.) 성경은 세상이 시작될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즉 질서 잡힐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계셨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교재 ‘들음’을 보세요. 여러분이 가축 필통을 만든다고 가정해볼게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재료들을 ‘베레쉬트’ 단어 주변에 적고 나누어볼게요. (시간을 준다. 한 사람씩 발표한 후 격려한다.) 가축, 도안, 실, 바늘, 가축을 자르고 구멍을 뚫을 공구, 자, 가위

등이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적고 보니,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이 더 많아요. 가축 필통을 만드는 데도 많은 준비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세상이 어떤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대답을 듣는다.) 비어 있고, 질서도 없고, 어둡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약속이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말로 전달할 때에는 머릿속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창조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볼게요.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창 1:3).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창 1:4). 그렇다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창 1:6).

하나님은 물이 나뉘지게 하심으로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경계로 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어요.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창 1:9).

아마도 땅과 물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물은 모여서 바다로 모아지고 물이 빠진 곳은 물이 드러나서 땅으로 만들어졌어요.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땅 위에 온갖 종류의 나무와 식물들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창 1:14).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창조예요. 왜냐하면 해를 만듦으로 우리 지구와 그 외의 여러 별들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을 일 년에 한 번씩 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신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다섯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창 1:20).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과 땅과 하늘을 채워 넣으셨어요. 바다에는 수많은 생물들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수많은 새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창 1:24).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다양한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며 매우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고자하신 질서대로 잘 만들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다음에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대답을 듣는다.) 계획대로 다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설명할 사람이 있나요? (대답을 듣는다.) 식물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빛과 땅이에요. 그래서 빛과 땅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바다 생물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모여지는 곳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답을 듣는다.)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빛의 공급이 일정하고, 우리가 알아보았던 중력이나 무게 등의 질서가 명확해야 했어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그 질서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

들어 놓은 것 위에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식물들을 먹고 사는 동물은 식물이 있어야 하고,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있어야 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성 동물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순서가 뒤집히면 동물들은 멸종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만족해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세요.

DEEP Q

1. 창세기 1장에서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적어보세요.

창조주, 질서를 세우신 분, 최고의 세상을 만드신 분, 가장 뛰어난 세상을 만드신 분 등으로 말할 수 있어요.

2. 창조 이야기에서 새롭게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와 놀라운 능력이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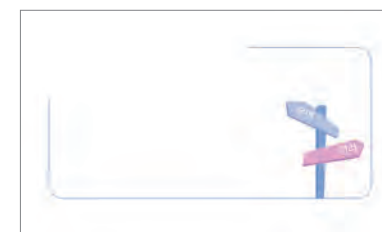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세요.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생각해보세요. (시간을 준다.) 여러분 교재 ‘결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자신이 발견한 가장 신기하고,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적고 그 이유를 나누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한 사람씩 발표한 후 격려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일까요? (시간을 준다. 한 사람씩 발표한 후 격려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과학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연을 믿을 것인지 진리를 믿을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같이 나누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준다. 한 사람씩 발표한 후 격려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보다 사람이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그 창조를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